

大統領과 同一額의 技能工給與

—鐵鋼王 카네기가
老工에 試圖—

美國의 카네기라고 하면 國際
의인 鐵鋼業者이며 그의 功績과
人間性이 아니면 그가 그만한 철
강업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란
것이 世評이다.

카네기鐵鋼會社의 社主인 그는
원래 鐵工所의 技能工이었다. 철
공소의 기능공이라야 그 始發은
해머를 드는 職工이다. 그는 항상
자기의 體驗을 통해서 얻은 경험
을 살려 언제나 기능공을 優待
하였다.

아이디어 教室

어느날 그는

工場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誠實
하며 기능이 卓越한 老技能工을
불러서 『그대의 훌륭한 기술과
誠實한 責任感 덕분에 이 회사가
世界的인 製品을 生産하게 되어
고맙기 그지없다. 따라서 그대를
任員으로 昇進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辭令狀을 手交하러 했다.

그러나 그 노기능공은 필적 뒤
면서 『저의 삶의 보람은 불꽃이
튀는 공장속입니다. 더우기 저는
앞날이 멀지 않은 늙은인데 任員
이란 굴레로 저의 즐거움을 빼지
말아 주시요』했다는 것이다.

카네기는 그의 人生觀에 感動
되어 자기의 主張을 撤回하고 그
대신 새로운 사령장을 그 자리에
서 써서 주었다. 그 내용인즉
大統領의 俸給과 同額의 給與를
支給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네기는 그 사령장을 주
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은 미국

에서 第1人者이지만 그녀는 기능
공으로서 미국의 제1인자이므로
대통령과 같은 報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慰撫했다.

捕虜生活에서의 着想이 致富케

—펜대글 칼날이
菓子商 資本으로—

2次大戰이 끝남과 동시에 蘇聯
軍에 捕虜가 되었던 탓으로 致富
한 日本人이 있다. 森秋廣이란 日
本人이 敗戰으로 滿洲에서 소련
군에 붙잡혀 포로생활을 하던 어
느날 소련병이 쓰고 있는 펜대글
에 羨慕만한 아주 작은 나이프를
찾아 쓰고 있음을 보았다. 절모
양은 모두가 펜갈았으나 즉의 갈
날부분만이 달랐다.

그는 歸國 후에 商品化할 것을
着眼하여 그 펜대를 入手, 포로
에서 풀려 귀국한 뒤 즉각 意匠
으로 出願하였다. 이때의 일본의
사정은 이러한 상품의 의장도 登
録이 쉬웠던지 얼마 안가서 등록
이 許容되었고 그 名稱을 『펜나
이프』로 하여 製作 販賣한 바 크
게 得財하여 그 돈을 財源으로 中
國에서 戰前에 경영하던 本業인
菓子商을 차리게 된 것이다.

또한 일본의 戰後事情은 混亂
이 持續될 뿐만 아니라 日人의 口
味에 단과자가 비싸게 팔릴 것을
생각하여 감자澱粉에서 포도糖을
빼 내서 초코렛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하리스 초코렛
의 大工場을 이끈 것은 짧은 時
日동안이었으며 귀국할 때만 해
도 룩색뿐이던 못바리가 그 같이
巨富가 된것은 오로지 머리를 짜
낸 노력의 結實이라 하겠다.

머리의 能力은 遺傳, 環境, 教
育이란 3要素의 配合으로 左右
된다. 머리는 쉬는 것보다 大腦
를 鍛鍊할 수록 記憶力이 旺盛해
진다는 常識을 잊어서는 안된다.
메디안이 거울앞에서 계속 연습
코에 沒頭하지 않으면 觀客으로
부터 멀어진다는 哲理가 바로 아
이디어의 創案없이는 企業이 維
持될 수 없다는 眞理에 相通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무지우개 鉛筆이 빛은 喜悲

—企業主의 決斷이 巨富로—

고무지우개가 달린 鉛筆이 特
許戰으로 展開되어 喜悲를 이룬
事件이 있다.

美 라바 칠이란 大企業은 그 始
發이 고무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大成한 모델이라 할만하다. 원래
라바 칠은 보잘것 없는 연필 생
산을 主業으로 하고 있던 小企業
으로서 항상 新製品을 構想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하이먼이
란 無名의 畫家가 찾아 와서 연필
끝에 지우개고무가 붙은 연필의
特許를 팔겠다고 提議하게 되었
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제의를
無視하려다가 싼 값으로 實施權을
흥정하여 買入한 후 그로써 새 商
品을 만들어 市販한 바 意外로 人
氣가 좋았다.

그래서 大資本들이 앞을 다투
어 고무지우개가 붙은 연필을 생
산하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特許
網에 걸리게 되어 뜻을 이루지 못
하고 그 反射作用으로 進歩性이
없다는 理由를 들어 特許無効訴
訟을 提起하기에 이르렀다.